



제2차 긴급이사회 개최

제30차 정기총회 서면결의 추진 축사 시설 개편 TF팀 논의



협회는 지난 3월 24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제2차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이사회에서는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 받고, △제30차 정기총회 개최(안)를 수정 의결했다.

현재 코로나, 시로 인하여 집합총회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2020년 결산 및 2021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이사회와 총회는 서면결의로 추진하며, 제13대 임원선거는 추후 집합이 가능한 시기까지 연기한다. 이에 따라 현 집행부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또한, 향후 제13대 임원의 임기는 선출 시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임기 기간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 추가 구성, 가전법 및 SOP

개정 관련 정부·협회 TF팀 구성, 분뇨 부속 처리 및 가설건축물 개편 사업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기존 선거관리위원 탈퇴 1인으로 인한 1인을 추가로 구성했다.

가전법 및 SOP 개정 관련 정부·협회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협회 정식 TF팀 구성 전 협회 내부TF팀을 구성해 논의 이후 임원 회의를 통해 분과별 내부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뇨 부속 처리 및 가설건축물 개편 사업은 현재 분뇨 위탁처리계약서 대신 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법 건의 중이며, 2021년 농식품부 사업지침 중 축사현대화시설 개편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협회 임원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정부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향 '오리대패겹살', 냉동식품 인기 타고 각광

홈쿡 트렌드에 대용량 '냉동식품' 인기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외식은 자제하고 집에서 홈쿡과 홈술을 즐기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삼시세끼는 물론 홈술에 곁들일 훌륭한 안주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냉동식품이 인기다. 특히 넉넉한 대용량의 냉동식품은 외식이 어려운 요즘 한번의 구입으로 여러 음식으로 활용 가능한 똑똑한 재료가 될 수 있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홈코노미 시대, 넉넉하고 푸짐한 양은 물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로 변신 가능한 냉동식품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와

즐거움을 채우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넉넉한 대용량으로 부담 없이 즐기는 다향 '오리대패겹살'.

다향의 오리대패겹살은 넉넉한 대용량 단위 제품으로 더욱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다. 오리고기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뼈건강과 면역력을 증가시켜줘 요즘 같은 환절기 대표 건강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제품은 오리 고기를 1mm 두께로 잘라 짧은 시간, 한입에 구워 먹기 좋으며 구이, 두루치기, 찌개, 덮밥 등 다양한 레시피로 조리가 가능하다.

(농수축산신문)

정다운, 바사삭오리 출시

바사삭 오리 출시...바사삭 치킨 후속

마니커에프앤지 계열사인 정다운은 마니커에프앤지 '바사삭 치킨'의 기술과 브랜드를 그대로 적용한 신제품 '바사삭오리'를 출시한다. 바사삭오리는 지난 2019년 출시돼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은 '바사삭치킨'의 후속 제품으로 원료육만 닭고기에서 오리고기로 변경됐을 뿐 특유의 식감이나 풍미를 내는 기술은 그대로 적용됐다. 기존의 오리고기 튀김요리에는 기름이 많은 날개 등



의 특수부위를 주로 사용했던 반면 정다운 바사삭오리는 오리 순살을 이용해 바삭함과 순살의 촉촉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김선철 정다운 대표는 "바사삭치킨의 기술을 오리고기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며 "바사삭오리 출시를 계기로 바사삭 시리즈가 닭, 오리고기 시장에서 동반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축산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될까

국회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 증액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업인 가구 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해 의결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3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농식품부 추경안에 1조4천183억1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은 농식품부가 1조1천247억원, 해수부가 510억원, 산림청이 800억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외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2천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680억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210억원)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289억원) 등도 추가됐다.

(축산신문)

북한, 조류독감 방역 총력전

농가 소독 등 방역 수칙 전달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가금류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평양방송은 3월 7일 평양 가금 생산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수의 방역사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역학감시와 병 발생 통제체계를 면밀히 세우고 예방약들을 공장들에 공급해서 방역사업이 철저히 과학화되도록 지도와 통제를 짜고 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독과 닭 예방접종, 각종 검사

를 일별·주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만경대 닭공장과 외부 인원의 출입을 제한한 서포 닭공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하당 닭공장에서는 공장 구내와 주변에서 죽은 날짐승들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기관과의 연계 밑에 방역 규정대로 처리하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원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KBS)